

summer 2013 vol.02

Pamiry



2013 여름을 시원하고 무탈하게 보내고
매출 향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직원들 손으로 찍어서 만든 여름입니다.

교복처럼 만들면 명품이다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Pacom

Pacom APP

MIRAEING

Pacom
Books

BOOK JIHYERO

Book Make

BOOKMATE



CONTENTS

summer 2013 vol. 02



- | | | |
|----|----------------|------------------------------|
| 02 | 북페어 | Bologna Children's Book Fair |
| 04 | 칭찬합니다 | 패밀리 칭찬릴레이 |
| 05 | Message of CEO | 유레카 |
| 06 | 여름이야기 | 여행을 떠나요 / 집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
| 08 | 패밀리피플 | 정도진 과장님과의 만남 |
| 09 | 바이어방문기 | Welcome to Pacom |
| 10 | 힐링로드 | 지리산 둘레길 |
| 12 | 부서소개 | 천하무적 인쇄팀 A조 |
| 14 | 가족의편지 | 남편에게 들려주는 아내의 노래 |
| 15 | 팩컴광고 | 와이어콤 |
| 16 | 팩컴파트너 | 67세의 대한잉크 |
| 17 | 팩컴광고 | 팩컴북스 |
| 18 | 맛집탐험 | 어울더울 |
| 19 | 미술관탐방 | 한솔뮤지엄 |
| 20 | 찰칵소리 | |
| 22 | 팩컴뉴스 | |

Welcome to the Bologna Children's Book Fair



이탈리아 볼로냐 북페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 책 박람회로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해마다 열립니다. 올해 50회를 맞아 70여 개국에서 5000여명의 출판인, 삽화가, 아동과 교육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북페어는 단순히 출판인들의 축제인 줄 알았지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찾아 볼로냐 어린이 책 박람회로 모였습니다. 팩컴코리아도 그들 중 한 일원으로써 29홀에 단독부스를 가졌습니다. 전시회 첫째 날 부스를 돌아보면서 그 규모와 다양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화려하고 규모가 큰 부스부터 기본만 갖춘 부스까지 다양하여, 부스의 디자인을 보는 것만도 큰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전시회 입구에 다양한 국적의 일러스트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 책 박람회다운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팩컴의 본격적인 미팅 스케줄은 오후부터 시작하여 오전에는 publisher들에게 직접 찾아가 카달로그와 명함을 전달해 보았습니다. 직접 publisher들과 접촉해 보니 명함 하나 전달하고,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며, 팩컴의 고객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1 처음으로 카달로그와 명함을 전달했던 미국인 publisher. 친절함에 감동하여 파파라치 컷을 찍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follow up 메일을 보냈는데 팩컴의 소중한 고객으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둘째 날 Lawrence의 합류로 본격적으로 기존 고객들과의 사전 미팅 스케줄을 소화하고 잠재고객을 만남으로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황부장님과 Lawrence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민과장님의 친절한 고객대응을 보면서 많은 교훈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2013 k Fair

첫 사랑은 기억만 떠올려도 설렌다고 하죠?
항상 처음에 시작하는 일은 가슴속에 깊게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이번 저의 볼로냐 출장이 그랬습니다.
전시회 4일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일, 낯선 풍경과 마주하며 지냈던
시간은 제 인생의 작은 설렘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탈리아 볼로냐 북페어로 떠나보자구요~!

잠재고객을 만날 때마다 예상대로 세계 제조업의 중심에 서있는 중국이 인쇄시장도 점령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가격 경쟁력에서는 높은 벽을 느꼈지만 중국제품과 비교해 보니 팩컴코리아의 품질과 색감은 쉽게 따라올 수 없을 거라 확신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부스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Lawrence는 부스에 찾아온 고객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고객을 대하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비록 4일이라는 시간이었지만, 반복되는 업무와 일상으로 타성에 젖을 수 있었던 저에게 새로운 경험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주워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가치상 <볼로냐 라가치상>은 볼로냐 아동도서전 주최 측이 전 세계에서 출간된 그림책을 대상으로 작품성과 예술성 등을 기준으로 완성도 높은 그림책을 선정해 수상하는 시상제로 아동출판계의 노벨상으로 불립니다. 심사 위원단은 학연과 논픽션, 뉴호라이즌, 오페라 프리마 등 네 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로 대상 작품 1권과 우수상 작품 2~3권을 선정해 시상을 합니다. 한국 그림책은 2004년을 시작으로 2006, 2009, 2010, 2011, 2012년 학연 및 논픽션 부문에서 대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창비의 ‘눈’은 폴란드 작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가 창비에서 펴낸 그림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그림과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보나는 2011년 ‘마음의 집(창비)’으로 대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볼로냐 라가치상’의 대상을 차지해 2관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동출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큰 상을 2004년 이후 대한민국 도서가 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요즈음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이어 젠틀맨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부문뿐 아니라 도서부문에서도 한류바람이 크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진3

볼로냐 이모저모

볼로냐는 이탈리아 북부 내륙에 위치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 대학이 있습니다. 사진2 볼로냐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마조레 광장, 이탈리아에서 가장 넓은 광장 중 하나로 광장주위에는 시청사, 포데스타 궁전, 산 페트로니오 대성당이 있습니다. 낮의 풍경도 아름다웠지만 저는 해가 진 마조레 광장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사진3 팩컴의 소중한 거래처 중 하나인 ‘Catapulta’의 Javier 씨와 Nathash 와의 즐거운 저녁 시간도 가졌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함께한 시간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철원 부장님, Lawrence, 민상준 과장님~ 낯선 타국에서 보디가드처럼 듣든했고, 선생님처럼 많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볼로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영업기획지원팀의 신규발굴 업무에 연장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진2 낮



사진2 밤



패밀리 칭찬 릴레이



제본사업본부
강영일 대리님을
칭찬합니다!

평균적으로 퇴근을 제일 늦게 하고, 출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이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일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매월 월간지 작업

할 때면, 저녁에 들어오는 아르바이트까지 확인을 하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타 다른 확인까지 마치고 나면 기본 퇴근시간이 9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새벽에 퇴근을 하고, 다음날 아침 지각도 하지 않는거 보면, 저러는 것도 쉽지 않을텐데 하면서 안쓰러울 때도 많습니다. 5년동안을 지켜보면서 휴가도 몇 번 쓰는걸 보지 못한거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몸 좀 생각하면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제본사업본부
안준 과장님을
칭찬합니다!

본인이 맡은 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전 작업 중에 선거물 작업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량

과 짧은 납기일 때문에 저녁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아무런 불만없이 저녁 2부제에 출근을 하고, 2부제에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땐, 새벽 2~3시에 기계가 잘 되지 않으면 새벽이라도 다시 출근을 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모든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모습은 칭찬 받을 만 합니다. 요즘 기계의 잦은 잔고장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닐텐데 고생도 많고 지금까지 일을하며 지켜봐온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귀감을 살 만 합니다.



PREPRESS 사업부
최주일 대리님을
칭찬합니다!

입사한지도 오래 되었는데 초심을 잊지않고 변함 없이 항상 묵묵히 근무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첫 모습이 조금은 무뚝뚝해 보일수도 있지만, 때론 재치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하

며, 모든 직원들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이러한 모습이 PREPRESS 팀에서 큰 베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게 못내 아쉽긴 하지만… 하루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 변치않고 좋은 모습과 형으로 남아주었으면 합니다.



인쇄사업본부
박충용 과장님을
칭찬합니다!

늘상 바쁜 일과와 계속 이어지는 임업과 밤 근무에도 불구하고, 게을리 하시는 모습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 외중에도 팩컴가족의 경조사들은 거의다 쟁기시는 모습을 보

면, 존경심마져 듭니다. 또한 본인의 팀 인쇄사업부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바쁜 와중에도 가끔 예고없이 뭉쳐서 술 한잔과 담소로 여유를 즐깁니다. 이렇게 여유를 즐기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부서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충용 과장님은 충분히 칭찬 받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여 강력 추천 합니다.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
또는 깨달음은 우리 곁에 늘 존재하지만
보지 못하고 지나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거저 얻어진 것들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치열하고 심오하게 고민하고
찾고자 하는 자에게만 보이는
위대한 결과물이란 생각에
모두 동의하지 않을까요?

대표이사

김 경 수

Message of CEO

고대 그리스의 히에론왕은 대장장이한테 제작하도록 명령한 자신의 금관이 순금이 아니고 은이 섞인 가짜라는 소문을 듣고 아르키메데스에게 진위를 밝히라 명하였습니다. 해결책을 고민하던 아르키메데스가 우연히 물이 가득한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었고, 욕조에 채워진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비중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흥분한 그는 벌거벗은 채 목욕탕에서 뛰어나와 집으로 달려가면서 “Eureka”라고 외쳤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레카(Eureka)” 즉 “답을 찾았다” “깨달았다”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한 일화입니다.

[만유인력의 사과]로 불리는 뉴턴의 사과이야기도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봐왔지만 모두가 지나쳐버린 진리를 “문득” 찾아내고 깨달은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 또는 깨달음은 우리 곁에 늘 존재하지만 보지 못하고 지나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거저 얻어진 것들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치열하고 심오하게 고민하고 찾고자 하는 자에게만 보이는 위대한 결과물이란 생각에 모두 동의하지 않을까요?

우리 팩컴가족(Pamily)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의 4가지 핵심가치의 첫 번째가 “창조(창의)”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창조가 가능할까요? 밤낮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했던 아르키메데스나 뉴턴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다 불현듯 깨우친 것들이 비중의 원리가 되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되었겠나요? 혹자는 말합니다. 1명의 창의적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릴 창조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다고 말입니다. 부정하기 힘든 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 인재를 채용했다고 조직이 당연히 창의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가?>의 저자 스티븐 존슨은 “모든 직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과감하게 실천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등이 갖춰져야만 진정한 창의적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가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외주처에서 그리고 집에서 밤을 새워가며 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일들을 처리하고 있을 때 느껴보았던 희열을 가끔 되돌아봅니다. 아마 그 때가 제 일생에서 가장 창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때의 열정을 다시 가져볼 수 있을까, 그래서 “유레카”를 외치며 세상을 얻은 듯이 뛰어나갈 그런 날이 돌아올까? 제가 가끔 품어보는 꿈입니다.

여행을 떠나요!

▶ 천 가지 매력을 가진 홍콩 · 마카오

한국에서 3시간 30분만 날아가면, 세계문화유산 관광과 백만 불짜리 야경, 저렴한 비용으로 식도락, 쇼핑의 천국을 즐길 수 있는 홍콩과 마카오로 떠나요!



홍콩의 볼거리 45도가 넘는 급경사를 트램으로 타고 올라가는 피크트램 – 홍콩의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빅토리아 피크 – 서양인들로 북적거리는 바와 레스토랑이 있는 홍콩 소호 거리 – 세계 최대의 청동 좌불상을 볼 수 있는 포린사 – 점 보는 재미가 있는 홍콩의 유명한 사

원인 왕타이신 사원 – 세계 3대 야경을 자랑하는 빅토리아 항에서 심포니 오브 라이트(조명쇼) 즐기기 – 홍콩 최대 번화가인 침사추이 – 진정한 홍콩의 밤거리 몽콕 야시장

마카오의 볼거리 <홍콩 침사추이에서 마카오 반도 사이에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퍼스트 페리를 이용하면 홍콩에서 마카오로 한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어요.> 유럽풍 건물이 가득한 마카오 대표 광장인 세나도 광장 – 유럽과 아시아 종교 문화를 어우르는 역사적 상징 성 바오로 성당 유적 – 마카오의 랜드 마크 마카오 관음상 – 소박한 어촌 마을로 아기자기한 건축물들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콜로안 빌리지 – 베네치아의 하늘과 거리를 인공으로 재현한 마카오 최대 규모의 카지노 호텔 베니치안 리조트

▶ 꼭 먹어야 하는 음식



홍콩의 대표적인 음식인 딤섬과 마카오의 에그타르트!

▶ 3박 4일 예상 여행 비용

2인 기준 총 200만원 (항복 비행기 약 120만원 + 숙박 약 40만원 + 그외 약 40만원)

자료 출처 : 네이버 월비스





집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 방콕 피서

1. 독서 : ·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이병률) – 여행을 떠난 작가가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기록한 여행 에세이, · 빅피쳐(더글라스 케네디) – 뉴욕의 잘 나가는 변호사 벤이 우발적으로 아내의 불륜상대를 죽인 후, 그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이야기, ·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샘 혼) – 당신의 인간관계를 확실하게 개선시킬 대화 지침서!

2. 놀러갈 돈으로 시원한 마트에서 장봐서 집에서 맛있게 보내자.

- 추천메뉴 : 월남쌈
- 재료 : 라이스 페이퍼, 양상추, 깻잎, 당근, 오이, 소면, 닭가슴살, 새싹채소, 월남쌈소스(칠리소스)
- 요리방법



- 닭가슴살을 삶아서 새끼 손가락 길이로 잘게 췄어서 준비해줍니다.
- 소면을 삶아, 물기를 빼고 접시에 담아준비해 줍니다.
- 야채들을 깨끗이 씻어 새끼 손가락 길이 정도로 길고 가늘게 자른 뒤, 접시에 예쁘게 담아 냅니다.

- 라이스 페이퍼를 끊거나 물에 살짝 담갔다가 빼서 접시에 놓고 준비해 놓은 닭가슴살, 소면, 야채를 넣고 돌돌 말아 줍니다.
- 소스에 찍어 맛있게 드세요.♡

3. 그동안 보고 싶던 영화와 드라마 몰아서 보기!

4. DIY 뚝딱뚝딱! 가구나 프라모델, 패브릭 제품 만들기

▶ 시원한 실내 여행

- 영화, 공연장 가기
- 박물관, 미술관 가서 전시회 보기
- 보기만해도 시원하다! 아쿠아리움 가기
- 실내 스케이트장 (과천)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오신 우리회사 장인 정도진 과장님과의 만남

요즘 세상에 평생직장은 신화에 가깝다. 퇴직자중 30년 이상 근속자는 0.3%에 불과하다. 패밀리 여름호 People 정도진 과장님은 0.3%에 속하는 사회에서도 보기 드문 인물이며 회사의 역사를 고스란히 인쇄해온 장인이다.

시작 “1978년 가을 지금의 성인문화사(주)는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직업훈련소를 거쳐 20대 초반에 입사해 구로공단 그리고 군포 팩컴AAP(주) 8호기 기계를 운전하기까지 어느덧 제 나이가 57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틈 없이 이곳에서 일하고 결혼하고 정미선, 정은낭, 정은희 세 딸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하루 하루 제 일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 “제 일은 국내 및 세계인이 본다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며 나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는 힘입니다. 스스로 인쇄를 잘했다고 느꼈을 때, 인쇄교정이 잘 나와 바이어 및 감리자가 만족해 할 때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잉크와 종이를 다루는 일은 쉽지 않다. 거기에 공장 소음까지 겹쳐 환경적인 어려움도 컼다고 한다.

뼈를 묻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지나온 과장님의 얼굴에서 여유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바라는 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있듯이 칭찬과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인쇄업은 잔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일터의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 있는데 활기찬 분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칭찬입니다. 패밀리 창간호에서 해외 고객 칭찬 메일을 읽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동료들 또한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동료간의 칭찬이든 고객의 칭찬이든 사장님의 칭찬이든 어떤 형태의 칭찬도 대환영입니다.”

꿈 “유럽으로 가족여행도 가고 싶고 세 딸들이 좋은 신랑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아빠로써의 역할이 다 끝나면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도진 과장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의 꿈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진 과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이어방문기

Welcome to Pacom



4월과 5월은 많은 바이어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Noah publication의 Benjamin씨와 Charley의 방문을 시작으로, Formento의 BJ와 Richeille, Navigator의 Peter shamray, Craig 까지 연이은 바이어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바이어 방문 기간 동안 근처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한 방문과 5월의 생일자 분들의 만찬도 있었고, 담당자들의 많은 노력덕분에 회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Formento의 BJ와 Richeille은 담당자 및 pacom 직원 분들의 친절함에 좋은 인상을 받았고 덕분에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Craig는 한국에서 떠나기 전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며 스릴 있고 좋은 경험 한가지 더 만들어 간다며 좋아했습니다. Formento 바이어의 pacom 마지막 방문 날, pacom에 방문한 바이어분들 모두 같이 저녁만찬의 시간

이 있었습니다. Formento의 BJ는 오리생고기와 함께 맥주가 아닌 소주를 즐겨서 마시는 모습은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Craig는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인지 직접 고기도 구워서 먹고 한국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은 한국에 잠시 방문한 모습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분으로 보일 정도로 익숙하게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 끝 무렵에는, 고추 조각과 마늘을 넣은 상추쌈을 가위바위보를 통해 한 사람이 대신 먹는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되었던 게임이 마지막에는 바이어 모두 동참하는 큰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 걸리지 않기 위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몇 번의 반복되는 가위바위보가 시작되었고, 바이어들이 하나 둘씩 먼저 이겨서 제외되고 결과는 황철원 부장님이 드시게 되었습니다. 바이어 방문은 단순히 인쇄 감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제품의 품질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여 보여 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만큼 바이어 방문은 담당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바이어가 인쇄감리를 위해 현장에 가면서 분명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회사뿐 아니라 다른 곳을 방문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남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듯하면서 길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모두의 노력 덕분에 올해에 방문한 바이어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오는 바이어에게 Pacom이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로, 믿음직하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큰 회사로 계속 기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리산 둘레길

워너비 로드 Wannabe Road
둘레길과 마주하다.



여행이란 몸으로 쓰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신만의 책을 쓰고 계신가요? 이번에 저는 지리산 둘레길 ‘인월–금계’ 구간(3코스)에 다녀왔습니다. 총 19.3km의 코스로 다행이 논을 비롯하여 마을과 산, 계곡을 고루 즐기며 흔치 않은 비경을 감상 할 수 있어 둘레길만의 매력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이 마른 코딱지 같은 도시생활에 코가 뻥~ 평 뚫리는 기분이었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동서울 터미널에서 인월면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3시간 30분을 달려 드디어 시작점에 도착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국밥으로 배를 두둑이 채우고 한발한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풍경은 그림의 한 폭처럼 평온하게 풀을 뜯어먹는 누렁소였습니다.

평화롭고 고즈넉한 시골길을 감상하며 둑방길을 지나니 본격적인 트레킹 코스를 알리는 이정표가 나타났습니다. 길을 따라 30분쯤 걸어 중군마을에 들어서니 가파른 언덕, 산길과 마주하며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하였습니다. 걷는 중간중간 계곡과 만나서 한 숨 돌리고, 마을을 지나가며 농사짓는 농부들을 바라보니 어느덧 해가 뉘엇뉘엇 지는 시각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종착지인 매동마을에 들어서니 민박집 할머니께서 마을 입구까지 마중을 나와 계셨

평온하게 풀을 뜯어먹는 누렁소



습니다. 1박 2일의 강호동과 은지원이 숙박했던 곳이라 공할머니 민박집은 둘레길의 명소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숙박을 했는데 1박 2일의 흔적들을 여기저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차려주신 시골밥상을 한 상 먹고 방에 누우니 오늘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침 한 상을 뚝딱 해치우고 길을 떠날 차비를 했습니다. 아쉬운 마음 달래며 할머님과 1박 2일을 외치며 인증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길 위에 서니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횡마을을 지나 다행이 눈으로 유명한 상황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다행이 눈은 땅 한 뼘 이라도 더 일구고자 산비탈을 깎아 돌을 쌓아 올려 계단식으로 만든 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추천! 이렇게 멋진 풍경과 마주했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지리산 뱃사골 막걸리 한잔 하며 한숨 돌리세요.

구불구불 다행이 눈을 끼고 산길을 걷고, 병풍처럼 늘어져 있는 지리산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어느덧 저는 금계마을에 닿아 있었습니다.

6개의 산촌마을과 더불어 전구간에 골고루 섞여 있는 산과 계곡을 느끼며 자신만의 책을 써 보시길 팩컴가족들께 추천합니다!



할머니가 직접 재배하신 나물이 기득, MSG를 전혀 첨가하지 않은 시골밥상



이정표



마루 가득 채워진 방명록들



공할머니와 인증샷



다행이는



뱃사골 막걸리



짜잔! 나만의 여행 Tip

▶ Mp3와 잠시 이별하세요

바람의 소리, 나뭇잎들이 서로서로 손뼉 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 자외선 차단은 철저하게!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사실.

▶ 본격적인 트레킹 전 맥주 1~2캔을 준비합니다.

가슴 설레이는 풍경과 마주하였을 때 맥주 캔을 오픈합니다. 때론 몽롱하게 흔들리는 풍경이 더 욱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단, 과음은 금물입니다.

▶ 여행지들의 쉼터 매동마을을 소개합니다.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매동마을은 매화꽃을 닮은 명당이라하여 매동이라 이름 지어 졌다 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열풍과 더불어 마을전체가 민박집을 하고 있어 옛날 시골집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정말 착한 가격, MSG를 전혀 첨가하지 않은 건강 식단을 섭취하여 힘차게 트레킹 하세요! 예약은 필수입니다.

특히 공할머니 댁이요~ 자제분들도 엄마집에 방문할 때 예약을 하고 가신대요~ㅋ

매동마을 Website: <http://maedong.net>

▶ 둘레길 도보코스

첫째 날 : 인월면 ~ 매동마을 : 총 8.3km, 4시간 소요

숙 박 : 매동마을 감나무집 공할머니 민박집

둘째 날 : 매동마을 ~ 금계마을 : 총 11km, 5시간 소요





명품인쇄의 달인

천하무적 인쇄팀 A조를 소개 합니다

인쇄사관학교라 일컬을 정도의 긴장감이 돌고 있는 인쇄 현장. 한치의, 한점의 오차를 용서 할 수 없는 작업 공정! 이곳에서 일어나는 순간 순간은 긴장감이 돌고 있다. 외국 바이어 및 국내 고객들과의 인쇄감리 후 인쇄가 시작되면 일파만파의 LTE 속도로 각 공정으로 뻗어 나가게 된다. 그러나 평소 일할 때 와는 달리 각 호기별로의 기장과, 부기장과의 어울림은 여기 사진처럼 잘 어울리

류진성 과장 / 조병호 사원



김이균 사원 / 김기재 대리





신현식 사원 / 이재훈 기장



이병길 본부장 / 지현구 대리

는 형제들의 모습이다. 더욱이 크나큰 프로젝트 작업을 종료시킨 후 회사 인근 호프집, 텅집으로 들어가 회포를 풀 때면, 형님 아우의 두 형제지간으로 평소 못다한 이야기를 하며 잘된 점 잘한 점들로 담소를 나눈다. 특히 인쇄팀 A조에는 결혼을 일찍하여 이미 자녀를 결혼 시켜 박충용 과장은 사위, 김경제 부기장은 며느리도 보고 또한 이들은 모두 손주, 손녀까지 있다고 한다. 여기에 요즘 보기 드

물게 자녀가 넷인 직원(김기재 대리, 이재훈 기장)도 있고, 예전에는 회사를 기획 연출하여 TV방송에 출연한 자녀(윤천만 기장)도 있고 언제나 직원 회식 때 같이 한자리를 빛내주시는 사모님(지현구 기장)도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팩컴의 자부하는 명품인쇄의 달인 인쇄팀 A조는 어떠한 고객이 어떠한 까다로운 인쇄 품질도 명품인쇄 물로 제작하는 천하무적 팀이다.



박충용 과장



윤천만 기장 / 김경제 부기장

남편에게 들려주는 아내의 노래

올해로 22년을 팩컴과 같이 보내온 제본사업본부 이정근 과장
월간지 작업을 할때와 결혼기념일이 맞물려,
팩컴그룹 입사 이후로 제대로 된 결혼기념일을 챙겨 보았던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도 언제나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고,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자.



제본사업본부 이정근 과장과 가족

내게 행복을 주는 당신께...

참으로 오랜만에 당신에게 편지를 드는군요
어떤 말을 해야 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이 노래가 사사가 생각나니 나네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라면 좋겠고,
그길을 함께하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어느덧 함께한 세월이 21년이 지나가네요...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 20대를 지나,

자신의 일에.. 아이들 키우느라 너무도 바빴던 30대를 지나고,
이제 한 술 둘리며 서로를 두돌아보는.. 40대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지나갔네요...

때론 너무 행복해서 세상을 모두 염울 것 같을 때도 있었고,

때론 세상의 끝을 보는 거 같아 아파할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걸어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한 두 군데서 고장난 곳이 생기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서로를 배려하며.. 친구처럼~ 때론 설레임과 기쁠 한 이모처럼~
그렇게 '남자국' 막차 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늘 자신보다 가족을.. 가족보다 회사를 조금 더 생각하는 거 같아
아쉽고 심상치 않기도 많았지만.

늘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조금씩 고장나는 몸을 생각해서

한 대포 수10개씩 산도 보고 들도 보며,

여유를 찾으면서... 이쁜 마누라도 봐주면서 살자구요...

이자!! 이자!! 파이팅을 써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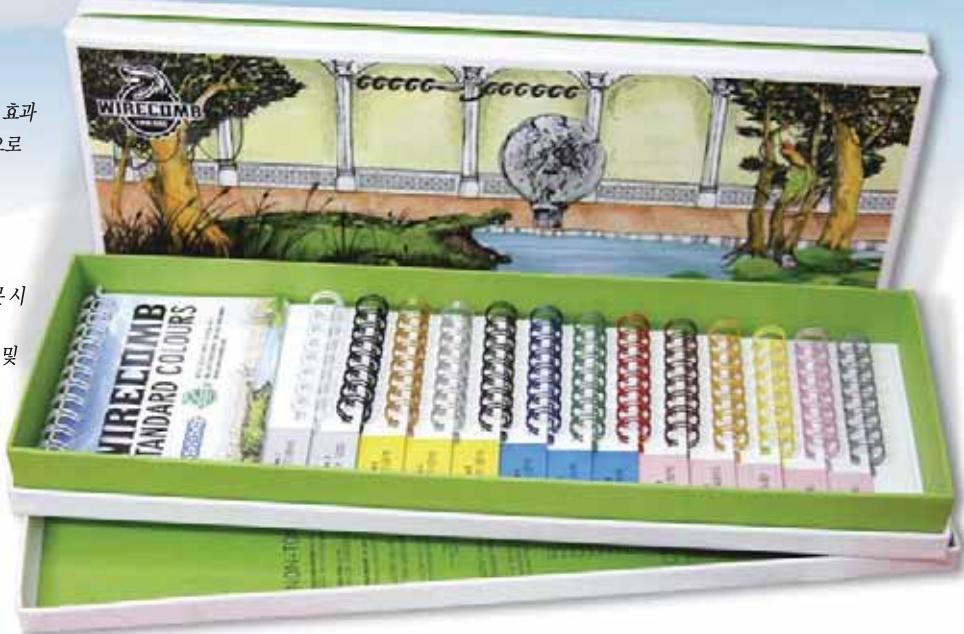
[Excellent Binding Solution]

와이어콤(WIRECOMB)

'와이어콤'은 사무 및 문구용품 외 다양한 와이어링 제본 및 제책에 사용되는 고품질 트윈링 제품입니다.

제품 특징

- 강력하고 안정감 있는 복 바인딩 효과
- '트윈링 엣지 클린칭 장치' 사용으로 안전성 강화
- 무독성의 친환경적 재료 사용 (SGS 무독성 실험 통과)
- 사용하기 편리하고 간편함
- 다양한 컬러 및 사이즈 고객 주문 시 제작 가능
- 다이어리, 브로셔, 노트, 카レン더 및 다양한 와이어링 제본에 적합



*Strong Binding, Easy & Safe,
Eco-friendly with High Quality*

'트윈링 엣지 클린칭 장치' 발명 특허 보유



와이어콤은 트윈링이 적용된 제본 제품의 최종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커팅된 트윈링 엣지(링 끝부분)를 구부리는 '트윈링 엣지 클린칭' 장치를 발명하여 특허를 받았다(특허 출원번호 제 2010-0139793 호). 트윈링 엣지 클린칭 장치는 커팅하여 날카로워진 트윈링의 끝부분을 라운드 형식으로 구부려 마감 처리함으로써 해당 트윈링이 적용된 책자 사용 시 찔리거나 다칠 위험성을 없애고 사용상의 불편함을 개선해주는 장치다.

SGS 무독성 테스트 통과!

와이어콤은 소비자의 인체에 접촉되기 쉬운 트윈링 제품의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제품 샘플에 대해 직접 SGS 홍콩 지사에 품질 테스트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재료 성분에 들어있는 9가지 성분 항목에 걸쳐 시행된 무독성 여부 실험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였다.

SGS는 1878년 설립되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1,300여개 지사에서 단일 네트워크로 시험, 검사 및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검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



팩컴코리아(주) 트윈링 사업부 / 홈페이지 : www.wirecomb.com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55번지 팩컴코리아(주) 안산공장 내
전화 : 031)483-3666 / 팩스 : 031)483-5857

Pacom's Partner 색채산업의 선두기업

67세의 대한잉크

대한잉크(주)는 1945년도에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지폐와 교과서 용 잉크 생산을 시작으로 업계 최초의 기술연구소 설립 및 인쇄 잉크 수출, 국내 최초 콩기름잉크 개발 등 수많은 ‘최초’ 의 역사를 만들어내며 반세기가 넘는 68년동안 국내 인쇄잉크 산업을 선도해왔다.

최첨단 시스템과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우수한 품질의 매엽 잉크, 윤전 잉크, 금속 잉크, UV잉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0년 대 들어 지속적인 투자와 전사적인 노력으로 ISO9001:2000 품질 인증과 ISO14001 환경영경인증 획득, 그리고 휘발성 유기용제를 ZERO화한 친환경 무용제잉크 ‘솔프리’의 개발과 미국 FDA 인증 획득, 세계 색상표준 ISO2846 획득 등 세계 기준을 인정받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컬러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의 무용제 잉크인 ‘솔프리’의 개발과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2010년에는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3년 5월에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세계 2대 인쇄박람회로 부상한 ‘China Print 2013’에 참가하기도 하였는데 China Print 2013는 전세계 20여개국 약 100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약 18만명이 참관하는 세계적인 인쇄박람회이기도 하다. 대한잉크는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대표 인쇄잉크 메이커답게 이번 박람회에서도 전세계 참관객들에게 대한민국의 우수한 잉크 제품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으며, 특히 대한잉크에서 특별히 준비한 CMS(Color Matching System) 참가 이벤트는 참관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잉크 해외사업부 이장균 과장은 “전세계 인쇄인들이 모이는 북경 인쇄박람회에 대한잉크가 참가하여 대한민국 인쇄 잉크의 우수성과 발전된 인쇄기술을 널리 알리고, 각국의 인쇄 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잉크 브랜드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615번지
대표번호 : 031-467-6321
홈페이지 : www.daihanink.com



대한잉크 평택공장 본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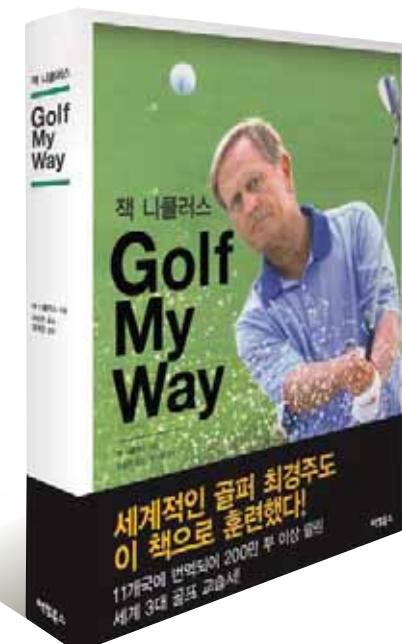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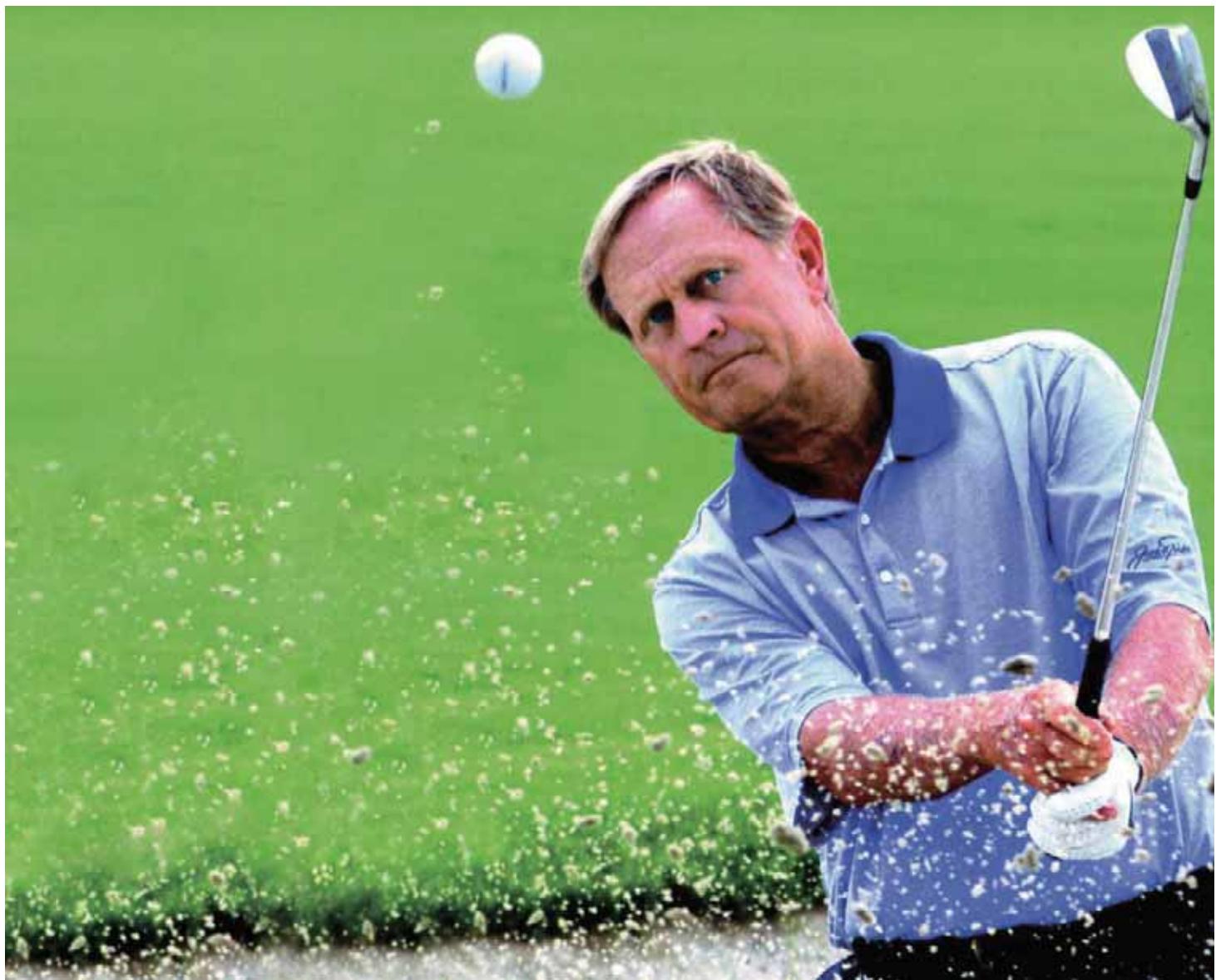
2010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상 수상



대한잉크 직원들 기념 촬영



대한잉크 직원들 기념 촬영



잭 니클러스 Golf My Way

골프계의 살아 있는 신화,
잭 니클러스가 진솔하게 밝힌 골프 세계, 골프 인생!

『잭 니클러스 Golf My Way』는 1974년 첫 출간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 팔린 세계 3대 골프 교습서 중 하나로,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다. 대표적인 멘털 스포츠인 골프, 골프 게임에 영향을 주는 멘털 요소들에 대한 조언과 함께 골퍼들에게 도움이 될 기술 및 게임 접근법이 상세히 나와 있다. 또한 과거와 오늘날 토너먼트 골프의 차이점과 그에 대한 견해 및 철학을 담았다.

잭 니클러스, 켄 보딘 공저 | 위선주 역자 | 35,000원

조원근의 숨은 맛집 탐험

이곳은 회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과천에 어울더울이라는 고깃집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175-2
자가이용 필수!!
영업시간 : am11시 30분 ~ pm10시
연중 무휴
TEL : 02-503-6817





기본 셋팅입니다.
나머지 친은 셀프로 제공됩니다.

한우 등심과 흑돼지 목살입니다.
고기가 참..두껍고 실하네요.

패밀리의 기자들~
맨손으로 고기를 먹네요 ㅋ





이곳에서는 손님에게 제공하는 모든 야채는 직접 재배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야채를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역시 고기엔 술이 빠질 순 없겠죠?

자연과 작품이 호흡하는 힐링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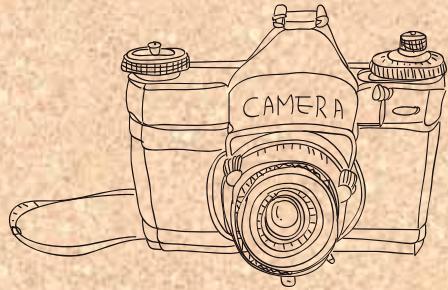


2013년 5월에 오픈한 한솔 뮤지엄은 강원도 원주, 산속에 위치해 있으면서 자연과 가까운 그러나 현대적인 세련 미가 듬뿍 들어 있는 힐링 미술관이다. 또 건축물들은 거의 산꼭대기에 위치해서 하늘과 맞닿은 듯한 묘한 매력이 넘쳐 나온다. 한솔 뮤지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2012년 팩商会이 제작한 Ando 북의 주인공 안도 타다오(Ando, Tadao)가 설계하고 7년 동안 건축했다고 한다. 본관과 제임스 터렐 (James Turrell) 특별 전시관이 자연과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본관까지 걸어가면서 온갖 꽃들과 자작나무로 둘러쌓인 길을 만나는데 그것들도 거대한 작품의 하나 인양 일상에 짜든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모든 걸 잊고 그 순간만은 근심을 내려 놓아도 편찮을 공간이다. 마치 동화 속 왕자가 공주를 만나러 가는 길처럼 계절마다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이곳을 힐링 미술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지 않나 싶다.

성곽같은 옹성의 생태 주차장에 내리면 바로 웰컴 센터가 나온다. 입구에 들어서면 플라워 가든에는 패랭이꽃 동산과 마크 디 수베로 (Mark di Suvero) 의 붉은색 조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계절 꽃들이 줄지어 핀 자작나무 숲을 마아냥 걷다보면 미술같은 워터 가든이 나온다.

얕은 물이 음악에 맞추어 잔잔하게 흐르며 사방의 야생화와 나무들을 그대로 담아 비추어 반영을 만들어 낸다. 그 위에 알렉산더 리버만 (Alexander Liberman) 의 작품이 대문처럼 공허하게 떠 있다. 뮤지엄 본관에는 종이 갤러리, 판화 공방, 청조 갤러리 등이 있는데 특히 청조 갤러리에서는 박수근, 김환기, 장육진, 남관, 이중섭, 오지호, 박서보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화가들의 원화들과 문신의 아름다운 조각과 백남준의 설치미술과 권진규의 테라코타를 감상할 수 있다. 다시 야외로 나가면 스톤 가든이 나오는데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스톤 마운트, 부정형의 선등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출신 빛과 공간 예술가 James Turrell 관에서 어둠까지도 작품이 되는 그의 무한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정적인 공간을 통채로 차지할 수 있어서 좋았고 언젠가 또 이곳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천천히 더 천천히 음미하면서 하나하나 그 느낌조차 가슴에 담고 싶다.



찰칵소리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사진을 보내 주세요.

E-mail : suhee5336@nate.com





PACOM NEWS

대사증후군 검사 실시



회사에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8회에 걸쳐 군포보건소의 협조에 방문 보건관리사의 진료로 팩컴 군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본 검사는 올해로 4번째 시행중인 검사로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하여 내당능 장애(당뇨의 전 단계, 공복 혈당이 100mg/dL보다 높은 상태, 적절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에 의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상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계 죽상동맥 경화증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대사 증후군이라고 한다.” 의 정의 아래 최고 연령자부터 수차적으로 매주 20명씩 검사를 진행 하였으며 특이한 점은 직원들에게 미리 사전 시간예고를 하면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참여 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만큼 모두들 건강관리를 최고로 두고 있고 우리 모두 각자 개인 건강은 가족의 건강이며 회사의 건강이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건강관리입니다.

명지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학생

팩컴 공장 견학



지난 4월 22일 명지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담당:한종인 교수) 2학년 학생 40여명이 당시를 견학 하였습니다. 회사 강당(식

당)에서 생산관리부 김희수 차장의 설명으로 인쇄의 개요 및 인쇄기기 및 편집 CTP로 이어지는 현황 등을 자세히 설명 경청한 후 당시의 각종 별 온라인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현장을 2시간이상 세밀히 집중하여 견학을 하였습니다. 졸업 후 견학온 학생들이 잠재 고객으로 다시 찾아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희수 차장은 특유의 목소리 톤과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열심히 설명을 하여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특식



지난 4월 30일(화) 회사에서는 5월 1일(수)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점심 시간에 삼겹살 파티를 실시 하였습니다. 식당에 올라오는 계단에서부터 이글이글 솔솔 날아오는 철판 삼겹살 향을 맡으며 직원들은 점심시간의 식욕을 맘껏 발휘하여 식사를 하였으며, 특히 식당을 운영하는 (주)ECMD에서는 삼겹살에는 빠질 수 없는 야채 상추 등을 넉넉히 준비하여 근로자들의 전체 생일날 철판 삼겹살을 푸짐하게 식사를 하며, 직원들의 활짝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은 다른 회사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정도였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하루는 특별한 날의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전자무역 프론티어 인증서 수여



5월 2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경기중기센터 1층 광교홀에서 2013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인증서 수여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와 전자무역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 됐으며 프론티어기업 인증서 수여식, 프론티어기업 육성사업 소개, 전자무역 대표지원사업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에 전자무역프론티어 기업에 선정된 우리회사 팩컴코리아(주) 등 200개 업체는 글로벌 사이트 광고 지원, 해외바이어 리스트 및 세계무역정보 등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지원 받는다. 김희경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은 꼭 필요한 핵심적 사업”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세계화 추세에 맞는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증서는 당시의 올해 신규 부서로 설립된 해외사업기획지원팀의 신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사대표로 해외사업기획지원팀의 최광묵씨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중소기업 연계 청소년(중1)진로지도 관련 진로체험 사업장 선정

우리 회사에서는 금번 정부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에 일환으로 시행중인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사업에 협장체험을 익히고 청

PACOM NEWS



소년들의 조기진로 정착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현장 학습(공장 견학 및 사무업무 견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세곡중학교 1학년 24명이 방문을 하였고 마장중(30명), 당산중(16명), 한강중(16명), 송인중(34명), 강일중(34명) 신서중(34명) 등 6월말 현재 7개중학교 179명이 당사에 진로체험 학습을 실시 하였고 10월말까지 4개 학교가 추가로 실시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에 진로체험 학습 방문을 하였을 때 지상파 방송과 종편 방송사에서 보도자료를 작성 하는 등 당사를 방문하여 열띤 취재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청소년 진로 교육정책에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를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하며, 기업 및 기관의 주요 업무영역을 고루 체험하고 실무자와 소통함으로써 일의 역할과 의미 직업 만족도 등에 대해 경험하게 됩니다.

사내 조명 설비 LED램프로 교체 및 에너지 절감 및 기계수명연장을 위한 스크루 콤프레샤설비로 교체

회사에서는 친환경기업으로의 이미지 및

 탄소배출의 감소를 원칙으로 군포공장의 조명설비를 LED 램프로 모두 교체하여 연간 전력요금의 34%의 에너지 절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기존 왕복동

콤프레샤를 스크루 콤프레샤로 교체하여 연간 3천여만원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설치 완공 하였습니다.

뮬러마티니 중철기 도입

지난 5월 회사에는 Primera C140[제조:뮬러마티니]의 중철기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속도 : max 14,000으로 입지기 8대 표지 입지기 1대로 최대의 중철기기를 도입하여 국내외 제본 중철시장에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13대 노사협의회 위원 인사



팩컴에이에이피(주)는 금번 4월 근로자 대표 협의회를 임기만료로 새로이 선출하여 근로자대표[제본 하상진대리], 근로자위원[제본 이채영], 근로자위원[인쇄 유재현]으로 3인으로 구성되어 출발하였습니다. 지난 3년 간 근로자대표 협의회 활동을 한 [소부팀 최영묵, 인쇄팀 김영수, 제본팀 하상진]은 보다 나은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활동에 노고를 치하하며 새로이 출발하는 13대 근로자 대표 협의회의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설비종합효율 개선을 통한 생산성 및 원

가선 회의 실시

지난 4월 5일(금) 인쇄사업본부 기장급 전체와 4월 23일(화) 제본사업본부 기장급 전체는 4층 대회의실에서 생산성효율과 향상을 위한 기장급 회의가 진행 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기기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 및 원가절감을 위한 회의



를 팩컴AAP(주) 최숙대표이사를 모시고 열띤 회의를 실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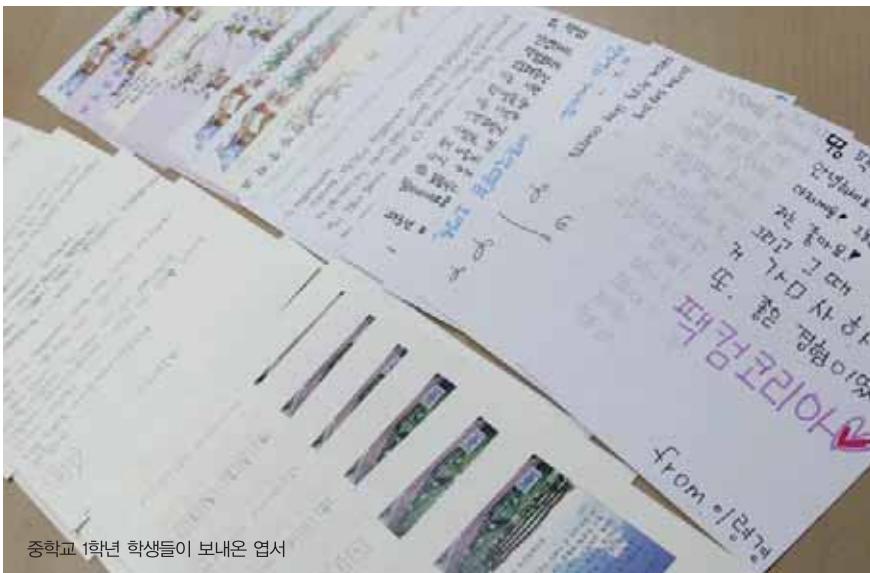
제7회 성남상공회의소회장기 족구대회 참가



지난 6월 8일 제7회 성남상공회의소 회장기 족구대회가 성남종합실내체육관에서 천여 명의 관중과 25개의 기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팩컴 족구팀은 예년과는 달리 선수층을 짚게하여 수암 공장의 소대용, 군포공장의 윤전팀 신정학 과장, 구본성대리, 한창현사원 및 장기출전 김성기기장(POD), 민상준과장(창조)으로 구성되어 출전하였다. 매해 출전하고 있는 팩컴은 예년과는 달리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대방 기선을 제압하여 동점 및 역전을 하는 등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벌였으며, 아쉽게 패하였지만 내년엔 4강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하이라이트인 선수와 관중에게 부여되는 선물은 이번경기의 빅 상품 “고급 자전거”를 우리선수 김성기기장(POD)이 뽑혔으며, 민상준과장(3년연속 받음)은 “10K 쌀” 등을 받았으며, 족구공도 획득하여 족구 경기패의 아쉬움을 달래며 복귀 하였습니다.

PACOM NEWS

**깜짝우편엽서**

지난 5월 우리 회사에 진로체험으로 여러 중학교 학생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중 한 1학년 학생들로부터 깜짝 우편엽서가 날아 왔습니다. 요즘 우편엽서를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받아보기는 보기 드문 일이라 더 육이 반가웠습니다. 학생들은 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신기했으며, “기계를 정성으로 아끼시는 마음이 인상” 깊었다는 학생,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일터”의 느낌을 받았

다는 학생, 장래에 북디자이너,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 윤전기처럼 일사천리 인쇄가 되는 기계의 달인이 되고 싶다는 학생 등 다양한 이야기의 엽서가 왔으며, 또한 현장의 아저씨,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며 학생들을 반가이 맞이 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학생들의 인사말이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팩컴이란 회사의 단어를 잊지 않겠다는 학생처럼 “팩컴이 만들면 명품이다”의 단어를 다시 한번 읽어 보게 됩니다.

경기도 도민체전 복싱부문 3위의 동매달 획득 이강명(수암공장)



지난 2013년 5월 경기도민체전 복싱부문에 참가한 수암공장의 훈남 이강명 사원은 평소 직장생활과 복싱운동을 병행하며 이번 경기도민체전에 출전하여 동매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이강명 사원의 꿈은 복싱부문 국가대표의 꿈을 안고 고1부터 복싱을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회사와 운동을 병행하며 맹연습 중이라 합니다. 직원 여러분 이강명선수의 동매달 획득을 모두 축하해 주세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촬영에 협조해 주신 팩컴가족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저자가 되는 그날까지!!

“책 1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북메이크

www.bookmak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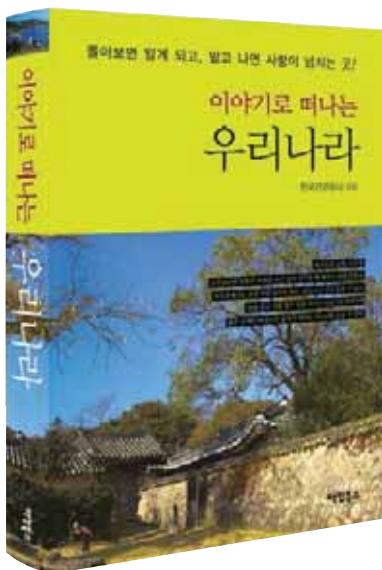
대한민국 구석구석

역사를 배우는 여행!

감동을 느꼈던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가는 여행!

우리의 맛과 멋을 찾아가는 여행!

아름다운 국토를 다시 둘러보는 여행!



돌아보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사랑이 넘치는 곳!

이야기로 떠나는 우리나라

어떤 여행을 기대하고 있든, 일단 짐을 싸고 신발 끈을 끊으며 원래 보고자 했던 것을 지우고 정말 낯선 이방인으로 그곳을 방문해보십시오. 이방인이라서 자유로운 곳, 낯설음으로부터의 초대. 익숙함을 떨쳐버리고 이방인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본다면 새로운 낯설음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자, 지금 떠나세요.

시간은 지금도 흐릅니다.

한국관광공사 지음 / 360페이지 / 17,000원